

자연공원과 야생조(26)

황오리



이 정 우
조류연구가
삼육대학교수

학명 : *Tadona ferrugined*

영명 : Ruddy Shelduck

지어 질퍽한 농경지에 내려앉아 푸성귀나 낙곡따위를 주워 먹으며 지내기를 좋아하고 낮시간은 때때로 한적한 강가에서 낮잠을 즐기기도 한다.

과거 이 황오리는 김포별판과 강화도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최근에는 천수만의 간척지가 금강일원에도 도래하는 개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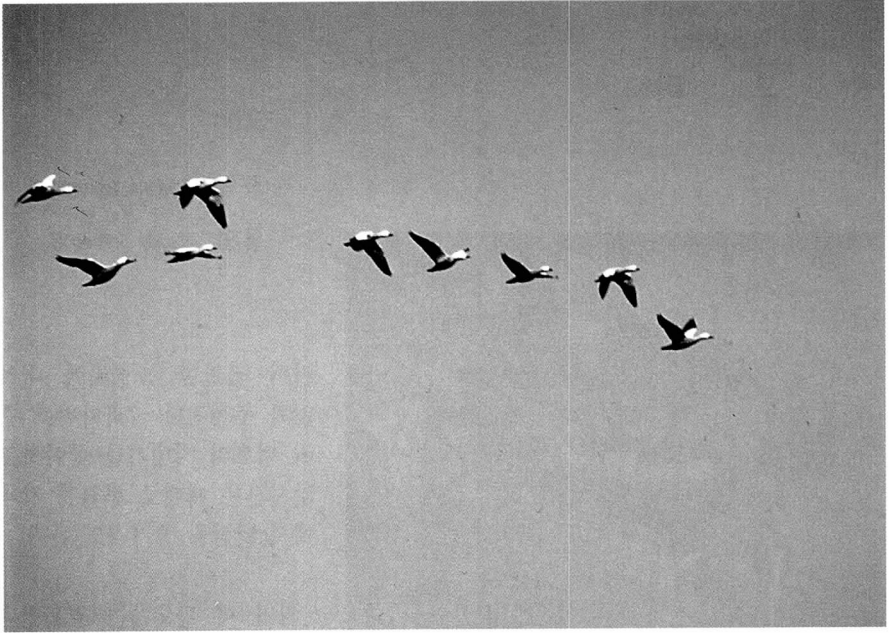
가 을건이가 끝난 겨울 들판은 삭막하기 그지없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기러기나 오리떼들이 도래하여 외롭지가 않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오리는 30여종인데 황오리는 행동이나 습성이 기러기와 흡사하다.

대다수의 물오리들은 강이나 저수지같은 습지대를 좋아하지만 황오리는 무리

30~40년전 낙동강 하류는 겨울철이면 기러기, 고니, 물오리들로 채워져 장관을 이루었었는데, 탐조를 나갔다가 드물었지만 한 두마리의 황오리를 보면 마냥 즐거워하던 추억이 아련하다.

황오리는 멀리서도 짙은 검색이 유난하여 타종류와 혼동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용이하고 또 무척 아름다운



황오리

오리이다.

거개의 야생물오리들이 그렇듯 분포 지역이 광범위한데 황오리도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일본, 중국까지 분포하고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에 걸쳐 폭넓게 번식한다.

우리나라에는 11월경에 와서 이듬해 3월하순까지 머물다 북상하여 번식지로 떠나는데 해마다 형성되는 기온에 따라 도래일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

번식지에서는 원앙이와 마찬가지로

나무 구멍, 땅에 뚫린 구멍, 바위틈을 이용하여 보금자리를 틀고 자신의 가슴과 배의 털을 뽑아 알자리를 만든다.

산란기는 5월부터 6월에 이르는데 8개 내외의 알을 낳고, 포란기간은 29일이다.

종자체는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수렵기에도 포획을 하지 못하게 새로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겨울철새이다.